

전 남

“지리산 케이블카 포기 못해”

구례군 재신청기로...상부 정류장 위치 등 변경안 마련

지난 26일 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구례 등 지리산권역 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재추진한다.

구례군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 노선을 변경하고, 오수(汚水)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보강한 뒤 재신청할 방침이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5일 기준 TF팀을 확충해 ‘삭도 추진단’을 공식 기구화할 예정이다.

구례군 등 4개 지자체가 다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신청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우선 군은 케이블카 노선을 재조정

할 방침이다.

하부정류장은 지리산 온천관광지구로 같지만, 상부 정류장을 당초 노고단 인근 KBS 중계소 하단부에서 아래쪽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정 위치는 추후 전문가 의견수렴과 타당성 용역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를 통해 반달곰 등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과 생태·경관 보전구역 등을 최대한 피해 설치하도록 규정한 환경부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또한 상부 정류장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등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구례군은 지리산 온천지구에서 노고단 인근 KBS 하단부를 잇는 4.3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환경부에 신청한 바 있다. 군은 케이블

카 설치가 확정되면 지리산을 관통하는 지방도 861호선과 삼삼재 주차장을 폐쇄하고, 국립공원내 심원마을이주 등을 통해 9만3000㎡의 생태계를 복원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 케이블카 경쟁성 평가에서 구례군 1곳만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타 시·군 상황을 봐가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인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6일 구례를 비롯해 남원, 경남 산청·함양 등 4개 지자체가 신청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심의한 결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충족시킨 곳이 없다며 모두 부결시킨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더 기발해진 머드림픽이 온다



고흥군, 경기방식 변화...21~22일 남양 선정마을

갯벌과 스포츠를 접목시켜 새로운 체험관광 브랜드로 관심을 끈 ‘고흥 선정 머드림픽(갯벌 올림픽)’이 오는 21~22일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을 해안갯벌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머드스포츠 경기 ‘5+1’

에서 ‘7+1’로 일부 종목 경기방식을 변경하고 머드달인 4종, 머드 굴림쇠 굴리기 등 어릴 적 즐겼던 정겹고 재미있는 체험위주의 종목을 추가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온 어린이들을

위한 머드 보물찾기와 머드 풀장, 고기잡기 등 체험 행사 등 여자만의 청정갯벌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했다.

올해 ‘고흥 선정 머드림픽’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단체, 갯벌 등

호인 등은 홈페이지(www.mud-lympic.co.kr)를 통해 1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고흥군 남양면 선정마을 주민들은 20여년간 일본 가시마시 ‘가다림픽’(일본식 갯벌 올림픽) 배배경주대회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지난해 첫 행사를 개최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gjju@



“다 커서 만나자” 보성군 직원과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조성 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근 득량면 비봉리 선소 선착장에서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감성돔 치어 23만마, 점봉어 치어 13만마가 방류됐다. (보성군 제공)

이젠 농사도 스마트하게

도, 시설원에 IT융합 모델화사업 추진

이제 농사도 IT(정보기술)로 짓는다.

전남도는 4일 “농업 생산·경영·유통분야에 선진 정보기술과 I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농·축산 IT융합 모델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설원에작물의 생산·경영·판매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내 토마토 36 농

가와 딸기 35 농가, 화훼 25 농가, 파프리카 15 농가 등 총 131 농가에 대한 IT융합 모델화 사업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시설원에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작물별 생육 시기에 따라 온습도를 직접 조절해줘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시설하는 IT 활용 자동화 제어 시스템은 컴퓨터가 작물

의 성장정보를 통합 데이터센터에서 모니터링해 작물별 최적의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영마인드를 높여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농식품부에 IT 융·복합 모델화 공모사업을 통해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6억원(전국 25억원의 24%)을 확보해 추진하게 됐다.

/오광희기자 krah@kwangju.co.kr

3차원 지적 기준점 설치 순천시, 경계분쟁 해소

순천시는 GPS 기기를 활용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지적 측량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기존 기준점은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세계적 추세인 세계적 지표 체계로 전환에 대비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를 위해 GPS 기기를 활용한 최첨단 인공위성 측량으로 3차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2008년부터 3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매년 500점씩 지난해까지 2000점을 완료했으며, 올해 기준점 519점을 설치 완료했다.

이번 기준점 설치 완료로 지적측량시 적기에 활용돼 각종 공사 발주시 공기단축은 물론 토지경계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차원 지적기준점 측량은 GPS 기기를 활용한 최첨단 인공위성 측량으로 기존 평면 직각 좌표 성과에 높이를 포함한 입체적인 성과를 제시 다양한 측량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적 사업에 필요한 경계측량과 확정측량시 적기에 측량이 가능해졌다”며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등록전환, 토지분할 등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 정확한 측량 성과를 낼 수 있어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yjy@

서해안 꽃게·참홍어 금어기 조정

국립수산과학원 오늘 해역과학 위원회에서 논의

서해안의 줄어드는 꽃게와 참홍어 자원회복을 위해 금어기(禁漁期) 조정 등 합리적인 자원관리 방안이 도입된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5일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서해해역과학 위원회를 열고 꽃게와 참홍어 자원의 회복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과학위원회에서는 꽃게 금어

기 조정과 참홍어 홍어용 어획량(TAC=Total Allowable Catch)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어업현장에서는 현재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백령·연평 해역 7월 1~8월 31일)로 설정된 꽃게 금어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과학위원회는 꽃게 금어기 변경하기 위한 조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확정할 예정이다.

참홍어 TAC는 흑산도 근해연승 어업(8t 이상 동력어선으로 주낙을 사용해 포획) 등에 200t으로 설정돼 있다. 하지만 연간 참홍어 어획량 300~400t 가운데 20~48%가 쌍굴이 기선 저인망 어업에서 잡고 있는 실정이다.

서해수산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결과로 토대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성진기자 sslee@

목포시, 바닷물 침수피해 주의보

4~6일 최고 5m 상승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5.04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는 특별 비상 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북항·해안로·남해·

하당 등 4개소의 배수 펌프장과 18개소의 배수문과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바닷물 수위가 5.04m까지 상승하는 기간 동안 북항 선착장 주변 해안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고 상가와 주택 침수 피해 예상물건을 옮기 등 재산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

여수시는 “서해안 등에서 발생

하는 너울 피해가 여수에서는 자연방파제 역할을 하는 섬들이 많아 큰 피해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람회장 주변과 등도 우수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끔 설계돼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발전기·배수 펌프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샴(스포츠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음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비새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ij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적임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저시공임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겨울엔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도 시공한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한다.
5. 창턱대, 발레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말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말린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바닥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마리 이상 뚫어서 물빠짐이 원할하다.

* 상기 특허 도출 및 이미지 도출시 개발비용이 합리하고 30%까지 할인됩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차에 우리측사의 돈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낼정도로 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로 새로 뚫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국 -

방수를 할 것이 불가피할 무었을 할까 고민중이던 방수처리로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호씨가 있을 뿐 아니라 반 영구적인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다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순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도 색도 안 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열이 들고 돌아오면 첫째, 선풍기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풍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럼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니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홍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